

#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심리적 행복감 예측요인 - 사회인 야구를 중심으로 -

서해주<sup>1</sup>, 김자옥<sup>2\*</sup>, 김자숙<sup>3</sup>, 김학선<sup>2</sup>, 박아영<sup>4</sup>

<sup>1</sup>서울대학교 암연구소, <sup>2</sup>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부, <sup>3</sup>동강대학교 간호학, <sup>4</sup>광주대학교 간호학과

## Predictors of Psychological Happiness in Leisure Sports Participant - Focusing on Amateur Baseball Clubs -

Hae-Joo Suh<sup>1</sup>, Ja-Ok Kim<sup>2\*</sup>, Ja-Sook Kim<sup>3</sup>, Hack-Sun Kim<sup>2</sup>, A Young Park<sup>4</sup>

<sup>1</sup>Cancer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Nursing, Dongkang College

<sup>4</sup>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여가스포츠 참여자(사회인 야구)의 심리적 행복감의 예측요인을 규명하여 개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자 시도된 융합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J도 여가스포츠(사회인 야구) 참여자 151명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자료 분석은 서술적 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다중 공선성 진단 후 단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여가스포츠 참여자(사회인 야구)의 심리적 행복감의 가장 큰 예측요인으로는 대인관계능력( $\beta=.190$ )으로 심리적 행복감에 대하여 46.9%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삶의 질, 자기효능감 3개의 설명변수가 심리적 행복감(Adj.  $R^2=.541$ ,  $F=59.57$ ,  $p<.001$ )에 대한 설명력은 54.1%였다. 이상의 결과로 심리적 행복감 증진을 위해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향후 객관화된 측정을 통한 심리적 행복감 예측요인 영향력 확인을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여가스포츠, 사회인 야구, 심리적 행복감,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자기효능감

**Abstract** This is a convergence study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psychological happiness of leisure sports participants(social baseball club) and to present a strategy for effective program develop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1 participants of social baseball clubs in J-do area and collected data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the explanatory power was 54.1% with psychological happiness, quality of life, self-efficacy.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strengthen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positive reinforcement of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were important for improvement of psychological happiness. an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tudy repeatedly to confirm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through objective measurement.

**Key Words** : Leisure Sports, Social baseball Clubs, Psychological Happiness, Occupational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Self-Efficacy

\*Corresponding Author : Ja-Ok Kim(jjaoki-93@wu.ac.kr)

Received November 15, 2017

Accepted January 20, 2018

Revised December 20, 2017

Published January 28,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인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신체활동이 적어짐에 따라 건강과 레저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스포츠는 지속적인 여가 활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1]. 휴일 여가활동 참여자의 수는 2014년 8539명에서 2016년 10094명으로 증가 추세이다[2]. 이는 결과와 물질적 성공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자신의 가치와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3]. 그 중 심체 여가활동인 사회인 야구는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과 발전에 힘입어 참여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4-6].

야구는 선수들 간의 협동심이 요구되는 종목으로 단체 종목의 특성상 개인이 잘한다고 하여 상대팀을 이길 수 없고 개인의 실수를 팀 동료의 협동심으로 만회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스포츠이며[7] 신체적 건강의 증진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감소, 대인관계능력 향상 및 성취감 고취 등과 같은 심리적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 심리적 행복감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통합되어 유발되는 긍정적인 인지적-정서적 상태로[8]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주관적 행복감과는 달리 이론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심리적인 자아의식들의 힘을 말한다[9].

직무 스트레스는 1990년에 들어와 산업심리학, 행동과학, 기업경영학과 같은 분야에서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개념이며, 이는 광범위한 개념을 지니고 있는 스트레스 개념을 직무차원의 스트레스로 한정된 것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스트레스를 말한다[10]. 직무 스트레스는 직무만족을 저해하고 이직률을 증가시키며[11] 업무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조직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신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10]. 여가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직무 스트레스가 낮다[12]는 선행연구들이 있으나 아직 사회인 야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무스트레스를 파악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대인관계능력은 협동심을 요구하는 야구에서 중요한 요소로 Miller(2001)[13]는 대인관계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상호의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14]. 적절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는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반면 대인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과 소외

감은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고 나아가 우울증, 사회 불안, 성격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심리 장애를 야기하고 지속 시키기도 한다[15,16]. 대인관계능력과 직무스트레스간의 선행연구 결과 작업 치료사의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는 감소되었고[17] 대인관계능력과 자기 효능감 간의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대인관계가 직접적인 매개 효과를 나타냈다[12]. 댄스스포츠 참여자[18]와 노인[19]을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을 측정된 선행연구는 있으나 사회인 야구참여자를 대상으로 대인관계능력을 파악한 선행연구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능력과 심리적 행복감간의 선행연구도 없는 실정이다.

자기 효능감은 어떠한 상황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믿음으로[20]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 대인관계에서도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21]. 반면, 자기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고 결과를 부정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문제대처방식도 적절하지 못하다[22, 23]. 신체활동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규명한 McAuley & Gill(1983)[24]은 인간의 행동은 자아 사고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인지 과정을 제어함으로써 인간의 동기와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신체적 기술의 점진적 획득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운동은 신체에 대한 지각과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아울러 자기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신체활동에서 발달한 자기 효능감은 움직임을 증가시키고, 자신의 건강 및 행복에 대한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선행연구 결과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신체적 자기 효능감은 지각된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25], 생활체조 참여 노년에서 자기 효능감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그러나 사회인 야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심리적 행복감 예측요인으로 파악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가스포츠 중 사회인 야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행복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심리적 행복감의 예측요인을 탐색해 봄으로써, 심리적 행복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가스포츠(사회인 야구) 참여자의 심리적 행복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심리적 행복감 예측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심리적 행복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 능력과 자기효능감 정도를 확인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행복감의 차이를 비교한다.
- 4) 대상자의 심리적 행복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 능력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 5) 대상자의 심리적 행복감의 예측요인을 규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가스포츠(사회인 야구) 참여자의 심리적 행복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심리적 행복감 예측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J도 여가스포츠(사회인 야구) 참여자 15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크기를 구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회귀분석에 이용한 독립변수 6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표본 수가 146명이었다. 이에 탈락률을 고려하여 16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157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한 총 151부(96%)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심리적 행복감

심리적 행복감은 Waterman(1993)의 PEAQ(Personality Expressive Activities Questionnaire)[27]와 Ryff(1989)[28]의 심리적 행복감 척도(The Scale of Psychological Well-being)를 참고로 양명환(1998)[29]이 번안하여 제작된 척도를 강동호(2012)[30]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6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심리적 행복감 점수범위는 최소 1점에서 최대 30점이다. 강동호(2012)[3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4였다.

#### 2.3.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Chang et al., 2005)[31]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4문항으로 직무요구, 직무자율성 결여, 대인관계 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등 7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부정문항(3,5,6,7,8,9,10,11,14,15,16,17,18,19,20)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51~.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1이었다.

#### 2.3.3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은 Warner(2007)[32]가 개발한 척도를 Performance Solution International (PSI) 컨설팅이 번안한 도구를 Chung(2011)[33]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타인기질 5문항, 의사소통 5문항, 관계촉진 5문항 등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부정문항(1,2,4,6,7,9,10)은 역코딩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ung(2011)[3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2였다.

#### 2.3.4 자기효능감

자기 효능감은 Sherer 등(1982)[34]이 개발하고 Kim(1994)[35]이 수정·보완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3문항으로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2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3이었다.

#### 2.4 자료수집

본 연구는 전라남·북도 지역에 있는 여가스포츠(사회인 야구) 대상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자를 윤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직접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참여하신 대상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고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을 안내하였다. 연구 종료 후 자료는 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서류함에 보관하며 3년 경과 후 세단하여 폐기 처리 합니다. 질문지는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도록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작성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로 제시하였다.
- 2) 대상자의 심리적 행복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 능력과 자기효능감은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으로 제시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행복감 정도의 차이분석은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심리적 행복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 능력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심리적 행복감 예측 요인은 다중공선성 진단 후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전라남·북도 지역의 여가스포츠(사회인 야구) 대상자를 임의표출 하였고, 대상자의 사회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 3. 연구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6.3±6.37세이었으며, 배우자 유무는 있다 95명(63.3%), 없다 55(36.7%)이고, 종교는 있다 43명(28.7%), 없다 107명(71.3%)이고, 학력은 고졸 이하는 41명(27.3%), 대졸이상은 109명(72.7%)이었다. 월별 수입에서는 200만원 미만 32명(21.3%), 200만원 이상 299만원 이하 62명(41.3%), 300만원 이상 399만원 이하 38명(25.3%), 400만원 이상 18명(12.0%), 직업유형은 사무직 67명(44.7%), 비사무직 83명(55.3%)이고, 사회인 야구 동호회 활동기간은 1년 미만 23명(15.3%), 1년 이상 3년 미만 43명(28.7%), 3년 이상 5년 미만 41명(27.3%), 5년 이상 43명(28.7%)이었다. 월별 경기 참여 회수 평균은 4.0±2.59회이었으며, 사회인 야구 목적은 건강유지 및 증진 37명(24.7%), 여가 39명(26.0%), 스트레스 해소 35명(23.3%)대인관계향상 19명(12.7%), 자기만족 20명(13.3%)이었다. 음주유무에서는 마신다 121명(80.7%), 안 마신다 29명(19.3%), 흡연유무에서는 피운다 83명(55.3%), 안 피운다 67명(44.7%)이다. 질병유무에서는 있다 11명(7.3%), 없다 139명(92.7%)이고 본인을 제외한 동거 가족의 수는 평균 2.31±1.20명이었다.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친구 78명(52.0%), 직장동료 50명(33.3%), 기타 22명(14.7%)이고, 몸무게 감소 유무에서는 감소했다 24명(16.0%), 감소하지 않았다 126명(84.0%)이며 삶의 질에서는 만족한다 67명(44.7%), 보통이다 83명(55.3%)이고, 참여 리그 평균은 3.24±1.77리그로 나타났다<Table 1>.

#### 3.2 대상자의 심리적 행복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 정도

대상자의 심리적 행복감은 5점(30점) 만점에 최소 2점(12점), 최대 5점(30점), 평균 3.57±0.67(21.40±4.03)이고, 직무스트레스는 4점(96점) 만점에 최소 1.25점(30점), 최대 3점(72점)으로 평균 2.22±0.29(53.20±7.04)점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은 5점(75점)만점에 최소 2.13점(32.0점), 최대 5점(75점), 평균 3.72±0.57(55.67±8.62)점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4점(52점)만점에 최소 2점(26점), 최대 4점(52점), 평균 3.02±0.38(39.27±4.8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50)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 SD
Age (yr)	<30	19	12.7	36.3±6.37 (yr)
	30-39	80	53.3	
	≥40	51	34.0	
Spouse	Yes	95	63.3	
	No	55	36.7	
Religion	Yes	43	28.7	
	No	107	71.3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41	27.3	
	≥University	109	72.7	
Income (month, 10,000won)	<200	32	21.3	
	200-299	62	41.3	
	300-399	38	25.3	
	≥400	18	12.0	
Job	White collar job	67	44.7	
	Blue collar job	83	55.3	
Acting period of Social baseball club (yr)	<1	23	15.3	
	≥1, <3	43	28.7	
	≥3, <5	41	27.3	
	≥5	43	28.7	
Times of Participation (month)	≤3	60	40.0	4.0±2.59 (times)
	4-5	78	52.0	
	≥6	12	8.0	
Purpose	Health maintenance and promotion	37	24.7	
	Leisure	39	26.0	
	Stress solution	35	23.3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rovement	19	12.7	
	Self satisfaction	20	13.3	
Drinking status	Yes	121	80.7	
	No	29	19.3	
Smoking status	Yes	83	55.3	
Disease	No	67	44.7	
	Yes	11	7.3	
Number of family (person)	No	139	92.7	2.31±1.20 (person)
	0	17	11.3	
	1	18	12.0	
	2	37	24.7	
	3	61	40.7	
Influence of doing Social baseball	Friend	78	52.0	
	Coworker	50	33.3	
	The others	22	14.7	
Weight loss	Yes	24	16.0	
Quality of life	No	126	84.0	
	Satisfaction	67	44.7	
	Moderate	83	55.3	
Level of league	≤3	95	63.3	3.24±1.77 (league)
	≥4	55	36.7	

<Table 2> Degree of Psychological happiness, Occupational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nd Self-efficacy

(N=150)

Variables	M±SD	Minimum	Maximum	Range
Psychological happiness	3.57±0.67	2.00	5.00	1-5
	21.40±4.03	12.00	30.00	6-30
Occupational stress	2.22±0.29	1.25	3.00	1-4
	53.20±7.04	30.00	72.00	24-96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3.71±0.57	2.13	5.00	1-5
	55.67±8.62	32.00	75.00	15-75
Self-efficacy	3.02±0.38	2.00	4.00	1-4
	39.27±4.88	26.00	52.00	13-5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행복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리적 행복감은 월수입(F=3.52,  $p=.017$ ), 삶의 질( $t=8.85$ ,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의한 변수에 대해 사후 검

정한 결과, 월수입에서는 400만원 이상 집단이 200만원 미만 집단보다 심리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Difference in Psychological happin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50)

Characteristics		Psychological happiness			
		M±SD	t or F	p	Scheffe' test
Age (yr)	<30	21.94±5.64	.23	.795	
	30-39	21.25±4.15			
	≥40	21.43±3.10			
Spouse	Yes	21.53±3.78	.50	.616	
	No	21.18±4.46			
Religion	Yes	20.95±3.53	-.86	.391	
	No	21.58±4.22			
Education	≤ High school graduate	21.63±4.50	.44	.664	
	≥ University	21.31±3.86			
Income (month, 10,000won)	<200 <sup>a)</sup>	19.72±3.97	3.52	.017	a) < d)
	200-299 <sup>b)</sup>	21.97±4.12			
	300-399 <sup>c)</sup>	21.11±3.80			
	≥400 <sup>d)</sup>	23.06±3.40			
Job	White collar job	21.58±4.08	.50	.621	
	Blue collar job	21.25±4.01			
Acting period of Social baseball club (yr)	<1	21.35±4.05	1.01	.389	
	≥ 1, <3	20.56±4.31			
	≥ 3, <5	21.68±4.02			
	≥ 5	22.00±3.74			
Times of Participation (month)	≤ 3	20.93±3.61	2.99	.053	
	4-5	22.06±4.28			
	≥ 6	19.42±3.63			
Purpose	Health maintenance and promotion	22.30±4.18	1.44	.223	
	Leisure	20.46±3.65			
	Stress solution	20.80±4.32			
	Interpersonal relationship improvement	22.16±3.60			
	Self satisfaction	21.90±4.14			
Drinking status	Yes	21.16±3.97	-1.52	.132	
	No	22.41±4.19			
Smoking status	Yes	21.42±3.93	.07	.942	
	No	21.37±4.18			
Disease	Yes	20.73±4.15	-.57	.567	
	No	21.45±4.03			
Number of family (person)	0	21.82±4.61	.49	.746	
	1	20.44±4.89			
	2	21.27±4.48			
	3	21.41±3.42			
	≥4	22.24±3.68			
Influence of doing Social baseball	Friend	21.37±4.05	.19	.831	
	Coworker	21.24±3.98			
	The others	21.86±4.22			
Weight loss	Yes	21.71±3.98	.41	.684	
	No	21.34±4.05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24.03±3.46	8.85	<.001	
	Moderate	19.28±3.11			
Level of league	≤ 3	21.23±4.08	-.67	.503	
	≥ 4	21.69±3.96			

3.4 대상자의 심리적 행복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심리적 행복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및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심리적 행복감과 직무스트레스( $r=-.44, p<.001$ )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심리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행복감과 대인관계능력( $r=.69, p<.001$ ), 심리적 행복감과 자기효능감( $r=.58, p<.001$ )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심리적 행복감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와 대인관계능력( $r=-.60, p<.001$ ),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r=-.51, p<.001$ )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 $r=.72, p<.001$ )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도 높아지는 것을 나타냈다<Table 4>.

3.5 대상자의 심리적 행복감 예측 요인

단변량 분석에서 심리적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자기 효능감, 월수입, 삶의 질을 독립변수로 심리적 행복감을 종속 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산출된 대상자의 심리적 행복감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F=59.57, p<.001$ ),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고자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중공선성을 진단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0.40~0.70으로 0.1 이상이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서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Durbin Watson 결과가 2.35으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잔차와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여가스포츠(사회인 야구) 참여자의 심리적 행복감의 가장 큰 예측요인으로는 대인관계능력( $\beta=.190$ )으로 심리적 행복감에 대하여 46.9%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가장 중요한 변수이며, 삶의 질, 자기효능감을 추가하면 설명력이 7.2% 증가하여 3개의 설명변수가 심리적 행복감(Adj.  $R^2= .541, F=59.57, p<.001$ )에 대한 설명력이 54.1%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4> Correlation among Occupational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Self-efficacy, Psychological happiness (N=150)

	Psychological happiness	Occupational stres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Self-efficacy
	r (p)			
Psychological happiness	1	-.44(<.001)	.69(<.001)	.58(<.001)
Occupational stress		1	-.60(<.001)	-.51(<.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1	.72(<.001)
Self-efficacy				1

<Table 5> Predictors on Psychological happiness (N=150)

Variables	B	SE	$\beta$	$R^2$	Adj. $R^2$	t	p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190	.041	.407	.473	.469	4.657	<.001
Quality of life†	-2.429	.535	-.301	.538	.531	-4.541	<.001
Self efficacy	.134	.066	.163	.550	.541	2.031	.003
Adj. $R^2= .541, F=59.57, p<.001$							

† Dummy variable(1: Yes, 0: No)

####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여가스포츠(사회인 야구) 대상자의 심리적 행복감,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심리적 행복감의 예측요인을 탐색해 봄으로써, 심리적 행복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여가스포츠(사회인 야구) 대상자의 심리적 행복감은 총30점 만점에 21.40점, 5점 만점에 평균 3.57점으로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사회인 야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행복감을 측정한 Kang(2012)[4]의 선행연구에서는 심리적 행복감은 5점 만점에 평균 4점으로 본 연구보다 더 높았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야구동호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행복감을 측정한 Im, Cho, Seok(2011)[36]의 선행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70점으로 본 연구보다는 낮았다. Lee & Nam(2015)[37]의 직장인의 심리적 행복감 연구에서는 다른 도구로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100점 만점에 65.12점으로 본 연구의 100점 만점에 71.33점보다 낮았다. 그러나 본 연구를 포함하여 3개의 여가스포츠 연구에서 모두 심리적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 편인데 이는 여가스포츠(사회인 야구)를 통한 육체적 활동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면서 즐거움 감정을 나타나게 되어 심리적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사료된다.

여가스포츠 대상자(사회인 야구)의 직무 스트레스는 총96만점에 53.20점, 4점 만점에 평균 2.22점으로 낮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된 선행연구에서[37] 직무 스트레스가 96점 만점에 평균 57.43점으로 일반 직장인보다 여가스포츠 대상자의 직무 스트레스 점수가 낮았다[38]. 이는 여가스포츠라는 육체적인 활동에 몰입하게 되면서 직무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가스포츠(사회인 야구)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은 총75점 만점에 55.67점, 5점 만점에 평균 3.71점으로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남자간호사의 대인관계능력을 측정된 54.62점(75점 만점)보다 높았다[39]. 이는 여가스포츠를 통해 사람들과 자주 만나서 긍정적 의사소통이 증가되며 야구경기를 통한 협동심을 배양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넓어지면서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여가스포츠(사회인 야구)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총 52점 만점에 39.27점, 4점 만점에 평균 3.02점으로 높았으며,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이러한 결과는 택시운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측정된 36.03점(52점 만점)보다 높았다[40]. 이는 본 연구에서 사회인 야구 동호회를 활동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대상자가 84.7%로 대부분으로 육체적 운동을 통해 신체능력에 대한 자각이 되거나 모든 생활이나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증가하면서 자기효능감이 커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가스포츠(사회인 야구) 대상자의 일반적 유형에 따른 심리적 행복감은 월수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3.52$ ,  $p=.017$ ). 그러나 사후검정 결과 월수입이 400만원 이상인 집단이 20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심리적 행복감이 높았는데 이는 경제적 상황의 차이가 많이 난 경우에만 심리적 행복감이 높다 라고 설명되어진다. 이는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재 생활비만 하기에다 빠듯한 수입인데 여기에 여가스포츠라는 부분에까지 수입이 지출되면서 경제적 부담감이 초래된다. 반면에 400만원 이상인 집단은 생활비를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는 여가와 같은 부가적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커지게 되므로 삶의 만족도 높아지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를 보면 삶의 질에 만족한다 라는 집단이 보통이다 라는 집단보다 심리적 행복감이 높았다. Kang(2012)의 사회인 야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소득에 따라 심리적 행복감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4]. 이는 추후 반복 연구를 통해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에서는 만족한 대상자가 보통인 대상자보다 심리적 행복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8.85$ ,  $p<.001$ ). 이는 삶의 질이 높을수록 심리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사회인 야구를 대상으로 삶의 질과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본 Im, Cho, Seok(2011)[36]의 선행연구에서 심리적 행복감과 삶의 질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사회인 야구 참여자에게 심리적 행복감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것을 나타낸다.

대상자의 심리적 행복감과 직무스트레스( $r=-.44$ ,  $p<.001$ )는 음의 상관관계, 심리적 행복감과 대인관계능력( $r=.69$ ,  $p<.001$ ), 심리적 행복감과 자기효능감( $r=.58$ ,  $p<.001$ )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대상자인 사회인 야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행복감과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 자기효능감을 측정



한 선행연구는 없어서 직접 비교가 힘든 상황으로 다른 대상자를 비교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클수록 심리적 행복감은 낮아졌다. 전문직 종사자인 코치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beta = -.273, t = -2.041, p < .05$ )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41]. 또한,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능력이 높을수록 심리적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행복감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를 보는 선행연구에서 검도운동 참가자의 대인관계 특성은 심리적 행복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42], 여성노인의 대인관계가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43]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심리적 행복감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행복감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에서 생활체육 참여 노인의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대상자의 심리적 행복감의 예측요인의 설명변수로는 대인관계능력, 삶의 질,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혼자서는 살수 없는 존재로 가족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대인관계능력을 형성하게 된다. 대인관계능력의 결핍으로 인해서 본인은 심리적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에 노출이 심한 현대인에게 심리적 행복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여가스포츠(사회인 야구)를 권장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한다.

## 5. 결론 및 제안

본 연구에서는 여가스포츠(사회인 야구) 대상자의 심리적 행복감,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능력과 자기 효능감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심리적 행복감의 예측요인을 탐색해 봄으로써, 심리적 행복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여가스포츠(사회인 야구) 대상자의 심리적 행복감과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은 음의 상관관계, 심리적 행복감과 대인관계능력, 심리적 행복감과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과 자기효능감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인관계능력, 삶의 질, 자기효능

감은 심리적 행복감을 54.1%를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여가스포츠(사회인 야구)를 심리적 행복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권장하여 육체적·정신적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관리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지역의 여가스포츠(사회인 야구) 대상자를 임의표집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가스포츠 대상자와 비 여가스포츠 대상자간의 심리적 행복감 비교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여가스포츠 같은 육체적 활동이 실제로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인지 실험연구를 제안한다. 셋째, 여가스포츠를 활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1] J. H. Kim, "The Influence of Regional Congruity between Sports Team and Fans on Team Attitude and Inspection Intention : Mediating Roles of Perceived Team-Fan Personality Fit and Team Identification", Journal of Culture Industry. Vol. 15, No. 10, pp. 1-10, 2015.
- [2] Culture center 2017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ies on Holidays - Participants in social and other activities only <http://stat.mcst.go.kr/mcst/resource/mng/static/ViewSpotfire.html?tblMgmNo=STBL-1026994>.
- [3] D. J. Jo, "Rather than doing waste, being frugal", Seoul weely trend, 2010. <http://me2.do/Gdxhq1pX>
- [4] D. H. Kang, "The relationships among leisure experience, leisure competence, leisure flow, leisure satisfaction and happiness of social baseball participant", doctor's thesis, KonKuk University, 2012.
- [5] NamuWiki Dictionary, 2017, Social baseball clubs <https://namu.wiki/w/%EC%82%AC%ED%9A%8C%EC%9D%B8%EC%95%BC%EA%B5%AC>
- [6] Wikipedia, 2017, Social baseball clubs <https://namu.wiki/w/%EC%82%AC%ED%9A%8C%EC%9D%B8%EC%95%BC%EA%B5%AC>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82%AC%ED%9A%8C%EC%9D%B8\\_%EC%95%BC%EA%B5%AC](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D%98_%EC%82%AC%ED%9A%8C%EC%9D%B8_%EC%95%BC%EA%B5%AC).
- [7] S. U. Ji, Y. J. Jung, Y. D. Kim, "The Influence of Endurance of Sports According to the Ability of Self-Management of Community Baseball Member",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4 No.

- 6, pp. 3405-3414, 2012.
- [8] K. H. Min, S. K. Kim,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ies and Leisure satisfac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professional soldier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Vol. 32, No. 4, pp. 21-32, 2008.
- [9] S. W. Lee, "Effects of Positive Attitude of Laughter Recreation Convergence Education on Psychological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3, pp. 37-49, 2015.
- [10] S. Kim, J. Y. Jang, C. H. Park, "Study 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f the horticultural therapist", pp. 160-161, 2012.  
DOI: <http://www.ppekorea.or.kr>
- [11] A. K. Lee, J. Y. Yeo, S. S. Byun, "Relations on Communication Competence, Job-stress and Job-satisfaction of Clinical Nurse",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3 No. 12, pp. 299-308, 2013.
- [12] E. H. Kim, H. Y. Lee, "Job Stress and Psychosocial Health according to the Level of Exercise Behavior of Working Wome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ertified exercise professionals*, Vol. 15 No. 3, pp. 49-59, 2013.
- [13] D. L. Miller, "Reexamining teamwork KSAs and employee performance", *Small Group Research* Vol. 32, No. 6, pp. 745-766, 2001.
- [14] H. S. Lee, "The Convergence Research Regarding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Addiction to Smartphones on Self-Efficacy : Lack of Sleep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the Paramete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8, pp. 315-323, 2017.
- [15] R. C. Kessler, R. H. Price, C. B. Wortman, "Social factors in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36, pp. 531-572, 1985.
- [16] A. L. Pinkus, J. S. Wiggins, "Interpersonal problems and conceptions of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Vol. 4, pp. 342-352, 1990.
- [17] J. M. Lee,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of Occupational Therapists on Their Work Stres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gnitive Rehabilitation*, Vol. 2, No. 1, pp. 81-97, 2013.
- [18] J. S. Jeon, Y. J. Yoon, "The Effects on Ego-resili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Ability Through Participation in Dance-sport Lessons for Middle School Boys",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Instruction*, Vol. 14, No. 4, pp. 681-698, 2010.
- [19] H. J. Jang, H. G. Shin, "Relationship between of Participation of Leisure Sport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Vol. 34, No. 1, pp. 681-690, 2008.  
DOI: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244080>
- [20]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6.
- [21] Y. S. Lee, "An Effect of Adult Learn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efficacy on Interpersonal Characteristic",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 8, No. 1, pp. 1-21, 2012.  
DOI: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230639>
- [22] A. Bandura,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Vol. 28, No. 2, pp. 117-148, 1993.
- [23]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Co., 1997.
- [24] E. McAuley, D. Gill,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hysical Self-Efficacy Scale in a competitive sport setting",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 5, pp. 410-418, 1983.
- [25] B. A. Kw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Leisure Sports Participants' Physical Self-efficacy, Health Promotion Behavior, Perceived Health Status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31, No. 2, pp. 203-214, 2014.
- [26] M. H. Hong, "The Relationship of Self Expression, Self Efficacy and Psychological Happiness of the Elderly Participating in Daily Exercise",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Girls and Women*, Vol. 30, No. 4, pp. 183-197, 2016.
- [27] A. S. Waterman, "Two conceptions of happiness: contrasts of personal expressiveness (e udaimoimo) and hedonimic enjoy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4, No. 4, pp. 678-691, 1993.
- [28] C. D. Ryff,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 s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7, pp. 1069-1081, 1989.
- [29] M. H. Yang, "Physical Ac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evelopment of Cognitive-Affective States Scale",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 9, No. 2, pp. 113-124, 1998.
- [30] D. H. Kang, "The relationships among leisure experience, leisure competence, leisure flow, leisure satisfaction and happiness of social baseball participant", doctor's thesis, 2012.
- [31] S. J. Chang, S. B. Koh, D. Kang, S. A. Kim, M. G. Kang, C. G., Lee, et al, "Developing an occupational stress scale

for Korean employe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Environment Medicine, Vol. 17, No. 4, pp. 297-317, 2005.

[32] J. Warner. "Networking and relationship building profile", MA: HRD Press.

[33] T. Y. Chu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managers' life-long education coaching leadership and its member's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terpersonal abi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Suwon, 2011.

[34] M. Sherer, J. E. Maddux, B. Mercandante, P. S. Dunn, B. Jacob, R. W. Rogers,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 Vol. 51, pp. 663-671, 1982.  
DOI: <http://dx.doi.org/10.2466/pr0.1982.51.2.663>

[35] J. I. K, " An Effect of Aquatic Exercise Program with Self-help Group Activities and Strategies for Promoting Self-help Group Activities and Strategies for Promoting Self-efficacy on Pain, Physiological Parameters and Quality of Life in Patients Having Rheumatoid Arthrit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994.

[36] B. G. Im, K. M. Cho, B. G. Seok, "A Path Modeling Approach on Relationships Among Leisure Flow, Leisur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of Participants in the Amateurs Baseball Leagu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0, No. 2, pp. 127-144, 2011.

[37] H. K. Lee, C. Y. Nam, "The Effects of Job Stress,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Happiness on Job Satisfaction of Office Workers", The Journal of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 21, No. 4, pp. 490-498, 2015. DOI:<https://doi.org/10.5977/jkasne.2015.21.4.490>

[38] W. S. You, "The Effects of the Participation in Amateur Social Baseball Game on Job Stress and Physical Fitness of Health", ma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Daejeon, 2013.

[39] M. K. Cho, C. G. Kim, H. J. Mo,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Job Stress on Nursing Performance of Male Nurses", Th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 22, No. 3, pp. 195-204, 2015.

[40] H. J. Suh, J. S. Kim, H. S. Kim, I. Y. Cho, H. S. Kim, "Effects of Emotional Labor, Depression and Self - Efficacy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Taxi Driving Workers", Vol. 15, No. 8, pp. 489-500, 2017.

[41] J. B. Yang, Y. C., Choi, D. K.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Coaches' Degree of Participation in Physical Leisure Activities and the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Happiness - Multi-group Path Difference

Regarding to Coach Type",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2, No. 4, pp. 1235-1246, 2013.

DOI:<http://www.dbpia.co.kr/Article/NODE02242216>

[42] H. J. Song, M. J. Seo, M. M. Kim, S. H. Im,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Features of Kumdo Participants on Psychological Happiness and Exercise Adherenc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3, pp. 179-195, 2017.

[43] M. J. Shin, Y. K. Joo, "A Study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 Affecting the Subjective Happiness of the Elderly Women Participating in Cultural Center Lifelong Learning Programs", The Journal of Humanities, Vol. 43, No. 12, pp. 285-300, 2017.

서 해 주(Suh, Hae Joo)

[정회원]



- 2017년 2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11월 ~ 현재 :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 관심분야 : 기본간호학, 간호중재 개발, 암환자 간호

▪ E-Mail : [mintchocol4@naver.com](mailto:mintchocol4@naver.com)

김 자 옥(Kim, Ja Ok)

[정회원]



- 2005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2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학, 간호중재개발, 취약계층 삶의 질

▪ E-Mail : [jjaki-93@wu.ac.kr](mailto:jjaki-93@wu.ac.kr)

김 자 숙(Kim, Ja Sook)

[정회원]



- 2012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수료)
- 2013년 3월 ~ 현재 : 동강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기본간호학, 모성간호학

▪ E-Mail : [jskim-98@hanmail.net](mailto:jskim-98@hanmail.net)

김 학 선(Kim, Hack Sun)

[정회원]



- 2009년 8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박통합)
- 2012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종양간호, 암환자 질적 연구

▪ E-Mail : hskim@wu.ac.kr

박 아 영(Park, A Young)

[정회원]



- 2009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환자안전, 치매, 간호교육

▪ E-Mail : ayoung@gwangju.ac.kr